

도시를
더 특별하게 하는
가장 맛있는
여행

“좋은 음식이 있는 골목엔
언제나, 좋은 여행이 있다.”

도쿄 미식 산책

골목 따라 맛따라

천천히 걸으며 발견하는
도쿄의 맛, 그리고 작은 하루들

TOKYO
TASTE
WALKS

やなか

COFFEE
BOOKS
GOOD DAYS

コーヒーで
今日を
やさしく



谷中ぎんざ

골목 따라, 맛 따라

일본, 내 동선대로 · 미식 산책 별책

PROLOGUE

관광지 사이에, 동네의 한 끼

역을 많이 바꾸지 않는 반나절. 아침 한 끼와 빵, 연못과 조개 밥 사이에서 도쿄의 크기를 줄인다.

도쿄 여행의 피로는 종종 명소보다 저장한 주소의 수에서 온다. 아침은 야나카, 점심은 시부야, 오후 커피는 기요스미시라카와로 옮겨 다니면 맛보다 환승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 이 별책에서는 동쪽의 두 동네를 각각 다른 날의 반나절로 나눴다.

야나카에서는 하기 카페의 아침과 Think의 빵 중 어디에 더 시간을 쓸지 고른다. 오래된 건물을 지금의 가게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구매 목록을 늘리는 일과 다르다. 그릇을 비운 뒤에 문을 연 작은 공간을 하나만 더 둘러봐도 충분하다.

기요스미 쪽에서는 정원, 후카가와메시, 커피가 차례로 역할을 나눈다. 걷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섞되 식사 두 번을 역지로 이어 붙이지 않는다. 비가 오면 정원을 줄이고 자료관을 길게 보면 된다. 어느 쪽도 관광객이 없는 비밀 장소는 아니다. 유명한 도시 안에서 하루의 범위를 작게 잡는 여행이다.

야나카의 주택 문 앞이나 작은 마당을 촬영 장소로 쓰지 않는다. 아타리의 공개 상업구역과 거주 공간의 경계를 지킨다.

표지는 도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골목·시설·전망을 재현한 사진이나 지도가 아닙니다.

CONTENTS

이 별책의 읽는 순서

이 도시를 작게 읽기	2
야나카 골목 미식 산책	4
기요스미시라카와 맛집 산책	6
한 끼를 고르는 네 곳	8
한 골목 더 걷는 세 곳	12
기다림·예산·동행자	15
식당에서 보여줄 일본어	16
출처와 확인 범위	18
내 반나절 기록	20

먼저 정할 것	선택
오전부터 출발	야나카. 모닝을 넣을 때는 HAGI의 아침 제공 시각 확인.
늦은 출발·전시 취향	기요스미. 점심 접수와 자료관 입장마감에서 역산.
큰 짐·아이 동반	아타리 안쪽·정원의 돌길을 줄이고 한 카페에서 쉬기.

‘숨은 곳’은 관광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대형 명소 위주의 일정에서 한 골목 더 들어가는 선택이다. 이미 유명한 식당도 포함한다. 실제 방문·시식 기록이 아닌 공개 자료 기반의 편집안이며, 식당 접수·메뉴·휴무는 여행일에 확인한다.

WALK 01

야나카 골목 미식 산책

아침과 빵을 나누는 반나절

야나카에서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점심 전 식당을 하나 더 방문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늘의 시작을 식탁에 돌지 빵집에 돌지 고르는 일이다. 하기 카페에서 모닝을 먹는다면 Think에서는 포장할 빵을, Think의 빵으로 시작한다면 하기는 커피 정도를 선택한다.

두 가게 사이를 한 방향으로 걸으며 목적지 없는 사진 시간을 조금 줄여보자. 낮은 집과 가게가 보이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깊이가 아니라 공개된 구역의 경계를 읽는 것이다. 문 앞에서 멈춰 서기보다 발길을 이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게에서만 머문다.

1 하기 카페

아침 또는 커피 · 머무는 시간 예시 55분
모닝 제공시각을 확인하고 호텔 조식과 중복하지 않는다.

2 우에노사쿠라기 아타리

공개 상업공간 둘러보기 · 머무는 시간 예시 35분
영업하는 점포와 공개 구역만 이용한다.

3 싱크

먹을 빵·가져갈 빵 고르기 · 머무는 시간 예시 20분
포장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는다.

이동시간·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모닝 중심 / 빵 중심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두 끼의 아침을 강제로 넣지 않는다.

WALK 01 · PLAN B

그날의 속도로 바꾸기

모닝을 놓쳤다면

일정을 되돌려 기다리며 배를 더 고프게 만들지 않는다. 오늘 모닝의 접수가 끝났으면 낮 카페 이용 여부를 묻거나 빵 중심으로 출발점을 바꾼다. 하기의 일반 휴무와 모닝 운영은 공식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한다.

아타리에서는 빵이 품절일 수도 있다. 특정 상품이 여행의 목적이라면 판매 상황부터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아 있는 상품 중 오늘 먹을 만큼만 고른다.

작은 공간에서 오래 머무는 법

공간이 예쁘다는 이유로 구매 없이 좌석을 오래 차지하지 않는다. 먼저 해당 가게의 이용 방식을 확인하고, 사진은 짧게 요청한다. 이 코스는 상점가 전체를 촬영하는 자체가 아니라 아침의 리듬을 바꾸는 산책이다.

유모차나 큰 짐이 있으면 골목과 실내 계단, 좌석 간격을 따로 묻는다. 지도상 짧은 거리라도 걷는 조건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비가 오면

비가 강하면 골목 체류를 줄이고 한 카페와 한 구매만 유지한다. 작은 가게를 빗물과 큰 짐으로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걷기를 줄이면

아이·부모님과 함께라면 식사 뒤 아타리만 보고 종료한다. 나머지 야네센 권역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확인 근거 [T01] · [T02] · [T07]

WALK 02

기요스미시라카와 맛집 산책

정원·후카가와메시·커피

기요스미시라카와에서는 커피보다 밥의 시간을 먼저 정해보자. 정원에서 조금 걷고 후카가와메시를 먹은 뒤, 자료관과 카페 중 오늘 남기고 싶은 것을 고른다. 둘 다 하고 싶다면 그만큼 이동과 대기 시간을 비워둔다.

이 동네의 물과 돌, 음식, 생활사 전시를 한 번에 설명하는 정답은 없다. 연못을 천천히 보고 밥 한 그릇을 고른 뒤 옛 생활 도구를 살펴보면, 식당을 단독 목적지로 갔을 때와는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

1 기요스미 정원

정원의 공개 동선 · 머무는 시간 예시 50분
걷기 어려운 돌길은 우회한다.

2 후카가와주쿠 본점

본점에서 점심 · 머무는 시간 예시 60분
평일·주말 점심 제공과 접수를 확인한다.

3 후카가와 에도 자료관

전시 선택 · 머무는 시간 예시 55분
카페와 둘 다 할 때는 입장마감부터 역산한다.

4 이키 에스프레소

마지막 커피 선택 · 머무는 시간 예시 40분
Espresso 지점을 주소로 구분한다.

이동시간·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맑은 날 정원 중심 / 비 오는 날 자료관 중심. 식사 한 끼는 유지하고 관람을 선택한다.